****

**전 세계를 매혹시킨 슬픈 사랑 이야기**

**연극 <렛미인 (원제: Let The Right One In)>**

신시컴퍼니는 2016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에서 제작하여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공연을 거치며 찬사를 받은 연극 <렛미인>을 아시아 최초, 비 영어권 최초로 공연한다.

* **연극 최초 레플리카 프로덕션 (Replica Production) 공연**

<렛미인>은 연극에 있어 최초로 진행되는 레플리카 프로덕션 공연으로 *‘****존 티파니의 훌륭한 프로덕션, 천재적인 예술성을 가진 작품이며 깊은 감정이 느껴진다.’*** - Daily Telegraph, *‘****눈을 뗄 수가 없다. 아름다움과 창의성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으로 당신을 안내한다.’*** - Whatsonstage.com 등 수많은 언론을 통해 찬사를 받은 오리지널 그대로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레플리카 프로덕션 - 원작 프로덕션의 모든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공연 형태)

* **심플한 무대, 충격적인 무대효과, 공간과 시간을 채워주는 음악과 배우들의 무브먼트**

**한층 진일보한 연극 <렛미인>**

무대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아름답지만 스산한 숲과 오스카와 일라이가 만나는 놀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 숲은 마치 동화처럼 거실이 되기도 하고 침실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숲은 모든 죽음이 시작되는 곳으로 관객들이 보는 눈 앞에서 뱀파이어가 가진 엄청난 힘과, 사람의 피를 빨아 마시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더불어 공연 전반에 언더스코어로 울려 퍼지는 아이슬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올라퍼 아르날즈의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음악과 세계적인 안무가 스티브 호겟의 유연하고 절도 있는 무브먼트는 이 작품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며 무대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이 작품은 뮤지컬 <원스>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던 존 티파니와 스티브 호겟의 두 번째 합작품이다. 이들은 2016년 전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연극 <해리포터> 공동 작업 중이다.

* **세계적인 연출 존 티파니와 재능 있는 한국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무대**

연극 <렛미인> 한국 초연은 600대 1의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충무로 괴물 신인 박소담을 비롯해 이은지, 오승훈, 안승균 등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젊은 연극 배우들과 영화와 연극을 넘나드는 중견배우 주진모 등 12명이 함께한다. 오디션을 위해 내한한 오리지널 연출 존 티파니는 “이 작품은 뮤지컬이 아님에도 더 극적이며, 더 뮤지컬스러운 느낌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흔치 않은 스타일의 작품이지만 우리는 배역에 딱 맞는 배우를 찾았다. 완벽하다!”며 연극 <렛미인> 한국 프로덕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 **매일 2시간의 웜업으로 시작되는, 땀내 가득한 연습현장**

연극 <렛미인>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뱀파이어의 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공연보다 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오디션 당시 무브먼트 테스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해내야 하는 모든 동작들은 배우들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M 높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싸우는 장면도 많다. 매일 2시간씩 진행되는 웜업을 통해 배우들은 팀웍을 높이고, 바로 이것이 공연의 밀도를 높여준다.

재능 있는 배우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도전과 최고의 찬사를 받은 오리지널 스태프들의 수준 높은 무대로 완성될 연극 <렛미인>은 올 겨울, 뱀파이어 소녀와 외톨이 소년의 가장 매혹적이고 잔인한 사랑 이야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연극 <렛미인> 홍보 담당**

• 박지현 010.8653.0578 / 070.4619.2824 / [jhpark@iseensee.com](mailto:jhpark@iseensee.com)

• 장유진 010.5149.0806 / 070.4619.2812 / [jyj@iseensee.com](mailto:jyj@iseensee.com)

**웹하드:**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 아이디: seensee1 / 비밀번호: 1234 / 연극 <렛미인> 폴더**

**연극 <렛미인> 공연 개요**

* **공연 기간**: 2016년 1월 21일 (목) ~ 1월 22일 (금) | 프리뷰

2016년 1월 23일 (토) ~ 2월 28일 (일)

* **공연 시간**: 화-금 8시 | 토 3시, 7시 30분| 일 2시, 6시 30분 | 월 공연 없음

(단, 2월 9일 • 10일 3시 공연)

* **장 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티켓 가격**: R석 • OP석 77,000원| S석 55,000원 | A석 33,000원
* **스 태 프**: 극본 – **잭 손 (Jack Thorne)**   
   연출 – **존 티파니 (John Tiffany)**  | 국내 협력 연출 – **이지영**   
   무브먼트 디렉터 – **스티븐 호겟 (Steven Hoggett)**    
   음악 – **올라퍼 아르날즈 (Olafur Arnalds)**  
   무대 디자이너 – **크리스틴 존스 (Christine Jones)**   
   조명 디자이너 – **샤인 야브로얀 (Chahine Yavroyan)**   
   음향 디자이너 – **가레스 프라이 (Gareth Fry)**
* **출 연 진**: 일라이 – **박소담, 이은지** | 오스카 – **오승훈, 안승균**  | 하칸 – **주진모**   
   오스카 엄마 – **박지원**  | 함베르그, 아빌라 – **박시범** | 조니 – **박민규**   
   지미 (토켈, 얀, 토마스 역을 겸함) – **임종완**  | 미키 – **임희철**   
   오스카 아빠 (커트, 요키, 닐스, 스테판 역을 겸함) – **안창환** 스윙 **– 장서화**
* **관람 연령**: 성인 및 중학생 이상의 두려움 없는 십대들
* **주 최**:예술의 전당, SBS, 신시컴퍼니

**목 차**

1. **연극 <렛미인>은 어떤 작품인가**
2. <렛미인>, 연극으로의 매혹적인 변신 ……………………………………………………………..……. 6
3. 뱀파이어 그리고 고독과 어둠을 걷어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 6
4. 두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답고도 잔혹한 무대 …………………………………………….………… 7
5. 단순한 움직임으로 큰 울림을 전하는 세련된 무브먼트 …………………………………….… 7
6.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올라퍼 아르날즈의 음악 ……………………………………..…. 7
7. **600:1 오디션을 뚫고 선발된, 반짝거리는 첫눈과 같은 배우들** ………………… 8
8. 끝나지 않는 시간 속에 갇힌 뱀파이어 소녀, 일라이 (Eli) 박소담, 이은지 ……....… 10
9. 영원한 사랑을 만난 외로운 소년, 오스카 (Oskar) 오승훈, 안승균 ………………...…… 12
10. 일라이를 사랑하는 인간 사냥꾼, 하칸 (Hakan) 주진모 ………………………………………. 14
11. **연출 존 티파니 1문 1답** …………………………………………….………………………………………15
12. **시놉시스** ……………………………………………………………………………………….…….………………… 17
13. **해외 언론 리뷰** …………………………………………………………………………………....…………….... 18
14. **히스토리** ………………………………………………………………………………………....……...…................ 18
15. **연극 <렛미인>은 어떤 작품인가**
16. **<렛미인>, 연극으로의 매혹적인 변신**

연극 <렛미인(원제: Let The Right One In)>은 스웨덴 작가 욘 아이비데 린드크비스트의 동명 소설과 스웨덴에서 최초로 개봉(2008)하고,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2010)되어 전 세계에 매니아 관객들을 양산하며 사랑 받아 온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연극은 스코틀랜드 국립극단(National Theatre of Scotland)이 제작하고 연극 <블랙 워치>와 뮤지컬 <원스>로 토니상, 올리비에상 최우수 연출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존 티파니가 연출을 맡아, 2013년 스코틀랜드 Dundee Rep Theatre에서 초연되었다.

이 작품에 쏟아진 찬사는 대단했다*.* ***‘절묘하게 아름답다 (더 가디언)’ ‘ 존 티파니의 훌륭한 프로덕션, 천재적인 예술성을 가진 작품이며 깊은 감정이 느껴진다 (데일리 텔레그라프)’ ‘눈을 뗄 수가 없다 (왓츠 온 스테이지)’***등극찬을 받은 이 작품은 영국 런던 Royal Court Theatre와 Apollo Theatre에서 공연된 후, 2014년 South Bank Sky Arts Award를 수상하였고, 2015년 미국 뉴욕 St. Ann’s Warehouse 공연으로 이어졌다.

1. **뱀파이어 그리고 고독과 어둠을 걷어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연극 무대의 특성상 쉽게 보기 어려운 소재이다. 뱀파이어 이야기는 종종 우스꽝스럽거나 환상 속의 이야기로만 치부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렛미인>은 뱀파이어라는 매혹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공포의 소재를 잘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중심에 사랑을 두며 뱀파이어 이야기를 다룬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훨씬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10대 소년 오스카, 그와 친구가 되는 수 백 년을 산 뱀파이어 소녀 일라이, 그리고 일라이 옆에서 한평생 헌신하지만 늙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하칸. 외로운 두 소년과 소녀의 사랑은 풋풋하지만 아련하며 더할 수 없이 매혹적이고, 이제 늙어버린 한 남자의 소녀를 향한 사랑은 쓸쓸하고 잔혹하다. 이렇듯, 연극 <렛미인>은 어떻게 해도 서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독과 어둠에 갇힌 사람들과 추락하는 순간 구원의 손길처럼 찾아온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당신은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평생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위해 많은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가?’ ‘순수한 사랑이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성장한, 현실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 이라고 역설한다.

1. **두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답고도 잔혹한 무대**

연극 <렛미인>의 무대는 존 티파니 특유의 미니멀리즘 연출의 진수를 보여준다. 관객이 작품과 중간에서 만나 소통하며,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선호하는 그는 가장 간결한 표현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냈다. 배경 전환 없이 극 전반을 지배하는 하얀 눈이 쌓인 자작나무 숲은 객석에 들어선 관객들에게 마치 동화 속에 초대된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무대 위에서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벌어진다. 소녀의 모습을 지닌 뱀파이어가 짐승과도 같은 엄청난 힘을 뿜어내며 사람의 피를 빨아 마시고, 그녀의 온 몸 모공 하나 하나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내린다. 극 후반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공간의 변화와 함께 무대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잔혹한 장면들이바로 눈 앞에서 펼쳐진다. "누구도 공연 중간에 '멈춰!'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막상 공연이 끝난 후엔 '진짜 그러고 싶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관객들에게 저는 '어디 한번 공연이 끝날 때까지 ‘멈춰!’ 라고 소리치지 않고 관람해 보시지!' 하고 도전하는 거죠.”라는 연출 존 티파니의 말처럼 관객들은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충격과 공포를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1. **단순한 움직임으로 큰 울림을 전하는 세련된 무브먼트**

연극 <렛미인>을 다른 연극과 달리 새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배우들의 무브먼트다. 뮤지컬 <아메리칸 이디엇>, 뮤지컬 <원스>를 통해 세련된 안무를 선보이며 이 시대 최고의 안무가로 자리매김한 스티븐 호겟이 이 작품의 무브먼트 디렉터를 맡았다.

단순한 움직임으로 큰 울림을 전하는 힘을 지닌 그의 무브먼트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순간, 또 다른 소통 방법으로 작용한다. 신비롭고도 잔혹한 뱀파이어의 몸짓을 통해 고독,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전하고,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외로운 소년 오스카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상상력, 인물들과의 관계, 뱀파이어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게 변화하게 되는 마을 사람들과 공간 사이의 관계성까지,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복잡한 이면을 몸짓으로 표현해내며 작품의 결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낸다.

1.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올라퍼 아르날즈의 음악**

이 작품에서 절대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아이슬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올라퍼 아르날즈의 음악이다. 아이슬란드 팝/록 음악의 요소는 물론 고전 음악과 현대 음악이 모두 공존하며,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매력적인 그의 음악은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언더 스코어로 끊임없이 흐르는 Brim, Old Skin, Til Enda 등 19곡의 올라퍼 아르날즈의 음악은 <렛미인>을 위해 작곡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그의 음악이 지닌 클래식의 미니멀리즘과 포스트 록의 몽환적인 공간감은 스산하지만, 시리도록 아름다운 이 작품만의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고, 관객들의 정서를 작품에 고정시켜 이야기에 흠뻑 젖어 들게 만든다.

1. **600:1 오디션을 뚫고 선발된, 반짝거리는 첫눈과 같은 배우들**

지난해 10월, 연극 <렛미인> 한국 초연을 위한 오디션이 진행되었다. 연극으로서는 놀랍게도 6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참여하였고, 2주 간의 오디션을 통해 최종 11명의 배우가 선발되었다. 오디션을 위해 내한한 오리지널 연출 존 티파니는 “이 작품은 뮤지컬이 아님에도 더 극적이며, 더 뮤지컬스러운 느낌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흔치 않은 스타일의 작품이지만 우리는 배역에 딱 맞는 배우를 찾았다. 정말 완벽하다!”며 오디션 결과에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 **충무로의 괴물 신인 박소담 & 신인 배우 이은지, 천재 연출 존 티파니를 매혹시키다!**

몇 백 년 동안 소녀로 살아온 뱀파이어, 일라이 역에는 ‘충무로의 괴물 신인’ 이라 불리는 <검은 사제들>의 히로인 박소담이 캐스팅되었다. <검은 사제들> 촬영으로 인해 짧아진 머리는 앳된 얼굴을 더욱 소녀처럼 빛나게 했고, 뮤지컬 배우의 꿈을 지닌 연기 천재답게 무브먼트 테스트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의 연기까지 본 연출 존 티파니는 “한 마리의 새처럼 작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그녀는 뱀파이어가 느끼는 모순과 혼란을 놀라울 만큼 멋지게 구현해 냈다. 정말 환상적인 배우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신인 배우 이은지가 박소담과 함께 일라이 역으로 캐스팅되었다. 긴 생머리에 처연한 표정으로 오디션에 임한 그녀는 일라이의 중요한 씬들을 완벽히 구현해 내는 섬세한 연기로 기대를 높였다. 특히 오스카로 최종 낙점된 배우들 모두와 완벽한 호흡을 만들어 내며 존 티파니를 만족시켰다.

* **일라이와 함께 작품을 이끌어 갈 오스카 역에는 신예 안승균과 오승훈이 낙점되다!**

20세가 넘은 남자로 보기에 놀라울 정도로 동안([童顔)](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0321500)인 안승균이 오디션에서 장면 연기를 마쳤을 때, 존 티파니는 말했다. “쟤가 바로 오스카야!” 오스카는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생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이 많은 캐릭터지만, 일라이를 만나면서 서서히 사랑의 감정에 들뜨고,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갖게 되는 인물이다. 안승균은 섬세한 오스카의 감성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표현해 냈고, 존 티파니는 마침내 오스카를 찾은 것에 환호했다.

안승균과 함께 오스카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오승훈은 실력 있는 연기자들의 보고(寶庫), 나무 엑터스의 신예 배우다. 잘 트레이닝 된 배우답게 섬세한 의상과 소품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준비와 연출의 요구에 따라 매끄럽게 변하는 연기, 그리고 귀여운 마스크로 심사위원들을 흐뭇하게 하며 새로운 스타 탄생의 기회를 잡았다.

* **“하칸을 찾았어요. 그가 있으니 다른 후보들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존 티파니***

인생의 극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빼어난 연기력을 갖춘 50대 이상의 중년 남자배우 중에서, 유연하고도 민첩한 몸놀림으로 극 중 안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배우. 바로 ‘하칸’을 연기할 배우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그런 배우가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 그 어떤 배역보다도 난항을 예상했던 하칸 역은 의외로 너무도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선 굵은 연기로 연극 무대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주진모가 바로 존 티파니가 찾고자 했던 그 하칸이었다.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배우로서는 놀랍게도 직접 인터넷 접수를 통해 오디션에 지원했다. 그리고 작품 분석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그는 ”일라이와 하칸 사이의 장면에 대해 이해하나?”는 연출의 질문에 “조금요.” 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연기는 하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담겨있는 눈빛, 무브먼트, 그리고 목소리였다. 그의 연기를 본 존 티파니는 “배우 주진모는 하칸이 인간의 늙어감으로 인해 사랑하던 여자를 잃을 수 밖에 없는 감정 포인트를 잘 잡았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교체된다. 그 슬픈 감정을 너무나도 잘 살려주었다.”며 배우 주진모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 **끝나지 않는 시간 속에 갇힌 뱀파이어 소녀, 일라이 (Eli)**

****

* **충무로의 괴물 신인, 첫 연극 무대에 서다! – 박소담**

**“연극을 통해 연기를 배웠기에, 무대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뮤지컬 <그리스>를 보고 배우를 꿈꾸기 시작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진학하여 연극을 통해 연기를 배웠습니다. 졸업 이후, 영화 작업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의 꿈을 시작했던 연극 무대에 꼭 한번 서고 싶다는 엄청난 목마름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렛미인> 오디션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일라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무엇보다 일라이는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무브먼트를 잘 해야 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무브먼트에 관련하여 흥미가 많았지만, 제가 그 동안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일라이를 연기하게 된다면 배우로서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작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던 <렛미인> 무브먼트 오디션을 보면서, 학교 다닐 때 연극 무대를 준비하며 즐거웠던 그 때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오디션에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 몸에 에너지가 가득 차고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작품 속 매력적인 캐릭터로, 첫 연극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프로필  
[영화]** 뱀파이어는 우리 옆집에 산다/ 검은 사제들/ 사도/ 베테랑/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설행: 눈길을 걷다/ 일대일   
**[드라마]** 처음이라서/ 붉은 달

****

* **뱀파이어의 눈빛을 지닌, 눈빛이 살아 숨쉬는 그녀 - 이은지**

**“영광스러운 무대 위, 일라이로 살겠습니다.”**

<렛미인>이라는 작품은 오디션 공고를 보고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어요. 굉장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 집중해서 보았고, 무엇보다 영화 전반을 지배하는 복합적인 사랑의 감정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영화를 보고 난 후, 정말 진한 여운이 남았고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서류를 지원했어요. 오디션은 긴장되기 보다는 재미있었어요. 두 번째 오디션 때, 약 2시간가량 20명이 한 팀이 되어서 무브먼트 심사를 보았는데, 심사가 아니라 수업을 받는 기분으로 즐겁게 임했어요. 최종으로 붙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에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어요.

연극 <렛미인>은 말 뿐만 아니라 무브먼트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공연이라고 해요. 영화 속의 그 장면들이 어떻게 무브먼트로 무대 위에서 구현이 될 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무대에 선 만큼 막이 내릴 때까지 일라이라는 역할에 푹 빠져, 일라이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공연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피땀 흘려 준비하겠습니다.

**프로필  
[연극]** 두 여자/ 삼봉이발소 / 무동 / 클라미디아 / 꽃이피네 꽃이지네

1. **영원한 사랑을 만난 외로운 소년, 오스카 (Oskar)**

****

* **그 누구보다 <렛미인>과 오스카를 사랑하는, 준비된 신예 - 오승훈**

**“오스카의 모든 것을 체화하고 싶어요.”**

<렛미인>은 몇 번이고 다시 볼 만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처음 영화 <렛미인>을 보았을 때, 일라이의 뱀파이어로서의 본 모습을 모두 다 목격하고도, 살해를 마친 후 피범벅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아주는 열두 살 소년 오스카가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일라이를 무서워하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오스카라는 아이에게 애정과 호기심이 생겨서 몇 번이고 영화를 다시 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당했던 따돌림, 그리고 무심했던 가족들로 인해 이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고독함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일라이를 바라보는 오스카의 마음이 어떨지, 배우로서 참 궁금했어요.

무대 위에서 오스카를 공감하고 표현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니, 게다가 정말 훌륭한 배우들과 제작진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오스카에게 느꼈던 충격, 안타까움, 흥미로움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을 관객 분들께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믿고 찾아와 주신다면 후회 없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프로필  
[영화]** 당신의 계절   
**[방송]** MBC SPORTS + 한스타 연예인 농구대잔치  
**[광고]** 롯데껌 - '껌스타그램 연인 편'/ MVIO/ 삼성캠퍼스톡 - '업앤업 주스트럭'/ 삼성전자 - '올쉐어스타 DJ 스파이더'   
**[뮤직비디오]** 박지헌 - '다시 겨울'

****

* **작은 체구, 어린 나이. 그럼에도 깊이감을 뿜어내는 배우 – 안승균**

**“진정성이 느껴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진심을 다하여 오스카를 전하겠습니다.”**

<렛미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였어요. 특히 상처가 많고 소심하지만, 순수하고 생각이 많은 오스카에게서 어린 시절의 저와 많은 공통점을 발견 했어요. 오디션 공고를 보자마자 오스카와의 공감대가 떠올랐고, 바로 지원을 했죠. 다른 공연 준비와 오디션 준비를 병행해야 했던 터라, 늘 시간이 부족하고 불안했지만 오디션을 준비할수록 이 작품을 하고 싶다는 욕심과 꿈이 점점 더 자라났기에 시간을 최대한 쪼개고 쪼개어서 정말 절실하게 준비했어요.

저는 나이로나, 실력으로나, 경험으로나, 많이 부족하고 미숙합니다. 어쩌면 저의 아담한 체구와 제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가지고 있는 앳된 이미지로 운이 좋게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연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기성 배우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제가 관객 분들께 어떤 모습의 배우로 비추어지는 것은 없지만, 잃을 것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배우로 다가가고 싶어요. 진심으로 준비해서, 진심으로 관객 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렛미인>과 오스카에 대한 궁금증을 가득 안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프로필  
[연극]** 비행소년 KW4839   
**[뮤지컬]** 마이 맘/ The Fetus

1. **일라이를 사랑하는 인간 사냥꾼, 하칸 (Hakan)**

****

*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기로 오디션 장을 날려버린, 연극계의 기둥 - 주진모**

**“엄청난 매력을 지닌 작품, 직접 오디션 원서를 썼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문화계 소식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렛미인> 오디션 공고를 발견했어요. 영어권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존 티파니 연출의 작품이자, 믿을만한 회사인 신시컴퍼니가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호기심이 생겨서 두 편의 영화를 모두 찾아봤죠. 영화를 보고 사실 조금 망설였어요. ‘뱀파이어 소녀 일라이의 애인이자, 아버지이자, 식량 공급자이자, 인간 사냥꾼인 하칸 이라는 인물과 내가 살아온 삶 사이에서 과연 어떤 접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사랑' 이라는 점이 좋았고, 우리 나라 정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무대 위에서 엄청난 매력과 색다름으로 다가올 것 같더라고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디션 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오디션에 응시하게 됐어요. 직접 오디션 원서를 쓰고,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이 되고, 이 작품에 열정을 가지기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작품을 이제 곧 준비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흥분됩니다. 극장을 찾아오는 여러분께 좋은 연기로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연극]** 벚꽃동산/ 관객모독/ 웃음의 대학/ 육분의 륙/ 인류 최초의 키스/ 바다에 가면/ 홍동지는 살아있다/ 왕자 호동/ 꿈하늘/ 건축사와 아싸리 황제/ 카스파   
**[영화]** 허삼관/ 군도: 민란의 시대/ 플랜맨/ 캐치미/ 미나문방구/ 신세계/ 남쪽으로 튀어/ 도둑들/ Mr.아이돌/ 체포왕/ 퀵/ 심장이 뛴다/ 아이들/ 헤드/ 전우치/ 굿모닝 프레지던트/ 님은 먼 곳에/ 사과/ 바르게 살자/ 즐거운 인생/ 거룩한 계보/ 타짜/ 범죄의 재구성   
**[드라마]** 처용2/ 가면/ 앵그리맘/ 왕의 얼굴/ 유혹/ 신의 선물/ 마녀의 연애/ 칼과 꽃/ 아이리스2/ 마의/ 더킹 투하츠/ 프로포즈 대작전/ 지고는 못 살아/ 로맨스타운/ 나쁜 남자/ 히어로/ 마왕

1. **연출 존 티파니 1문 1답**

* **Q1. <렛미인>의 어떤 점에 매혹되었나?**

영화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특수효과를 많이 쓰는 다른 뱀파이어 영화에 비해 이 영화는 ‘마치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가 뱀파이어 이야기를 썼다면 이랬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호러 영화가 아닌 러브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외톨이 소년이 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가 뱀파이어인 거죠. 그런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소설을 봤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작품을 연극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 작가가 연극 각본도 맡았습니다.) 소설에는 무브먼트가 들어갈 만한,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첨가할 공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에는 ‘당신은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평생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위해 많은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라이는 그 나이에 머물러 있지만, 오스카는 늙어갈 테니까요.

* **Q2. 연극 <렛미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다면?**

호러 장르의 잔인한 장면을 무대로 옮긴다는 발상이 좋았습니다. 사실 연극 무대라는 것이 뱀파이어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우스꽝스럽거나 환상 속의 이야기로만 치부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람 스토커(Bram Stoker, 드라큘라 소설을 쓴 아일랜드 작가)의 드라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도, 남미 등 모든 문화의 뱀파이어 이야기들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뱀파이어 이야기를 다룬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렛미인>은 훨씬 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뱀파이어 이야기에서 뱀파이어는 젊은 여성의 처녀성과 피를 취하죠. 순수함을 잃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고 뱀파이어를 소재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렛미인>은 사랑을 다룹니다. 순수한 사랑이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성장한, 현실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의 눈길을 끌었고, 이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면 정말 멋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 **Q3. 심플한 무대, 보고도 믿기지 않는 무대 효과, 공간과 시간을 채워주는 음악과   
  배우들의 무브먼트. 지금까지 연극과는 새로운 스타일의 연극 <렛미인>이다.   
  무대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관객들이 객석으로 들어오면 하얀 눈이 쌓인 숲 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숲 속은 거실이기도 하고, 침실이기도 합니다. 마치 동화 속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숲은 바로 모든 죽음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는 극 중,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를 흥미롭게 다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인간이자 엄청난 힘을 가진 뱀파이어, 그 힘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무서운 장면을 영화로 볼 때는 “저것은 특수효과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무대 위 바로 눈앞에서 뱀파이어가 사람의 피를 빨아 마시는 걸 보면 영화와 다른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자리에 앉아 진정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누구도 공연 중간에 “멈춰!” 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막상 공연이 끝난 후엔 “진짜 그러고 싶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관객들에게 저는 “어디 한번 공연이 끝날 때까지 ‘멈춰!’ 라고 소리치지 않고 관람해 보시지!” 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소인 무브먼트와 음악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작품이 다른 연극들과 달리 새로운 것은 바로 배우들의 무브먼트입니다. 안무처럼 표현되는 배우들의 무브먼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 또 다른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연 사이 끊임없이 사운드트랙이 흘러나와 관객들의 정서를 작품에 고정시킬 수 있게 만듭니다.

* **Q4. 한국 관객에게**

저는 자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극장스러운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장은 상상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대에서 아티스트와 관객이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세트를 좋아합니다. 연극 <렛미인> 무대도 바로 그런 곳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흔치 않은 무대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뮤지컬과 같은 안무와 끊임없는 음악, 그리고 피가 낭자한 무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고,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이 작품을 무엇인가 짧은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뱀파이어’입니다. 우린 오디션을 통해 완벽한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나라의 관객들처럼 이 이야기에 곧 흠뻑 젖어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원스> 오디션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신시 박명성 대표와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공포 이야기와 왕따 문제가 함께 버무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한국에서 올린다는 것이 대단히 기쁩니다.

1. **시놉시스**

**오스카(Oskar)**는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결손 가정의 외로운 십대 소년이다. 그는 도시 끄트머리의 주택 개발 단지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 그의 주변에서, 잔인한 살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다.   
**일라이(Eli)**는 오스카의 옆 집에 새로 이사온 어린 소녀이다. 그녀는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낮에는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둘은 곧 서로 마음이 통하며 헌신적인 친구 사이로 발전한다. 하지만 오스카가 모르는 사실은, 일라이는 십대로 살아온 지 매우 오래 되었다는 것….

1. **해외 언론 리뷰**

* ‘Beautifully intimate and be dazzlingly epic’ – Time Out, Andrzej Lukowski

**‘대단히 친밀하고 눈부신 서사시’**

* ‘Unforgettable, explosive. One of the most original shows of the year’

– The Observer, Susannah Clapp

**‘뇌리에 박혀 잊을 수 없고 격정적이다. 올해 최고의 오리지널 공연 중 하나’**

* ‘A strange, tender love story that will chill you to the marrow and break your heart’

– The Independent, Paul Taylor

**‘낯설지만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당신을 뼛속까지 으스스하게, 그리고 심장이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 ‘Exquisitely beautiful’ – The Guardian, Lyn Gardner

**‘절묘하게 아름답다’**

* ‘Compelling……takes you to the edge of human experience, with eye-opening candour, beauty and ingenuity’ – Whatsonstage.com, Michael Coveney

**눈을 뗄 수가 없다… 경이로운 솔직함, 아름다움과 창의성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으로 당신을 안내한다.**

* ‘John Tiffany’s fine production…… A WORK OF GENUINE ARTISTRY AND DEPTH OF FEELING’ – Daily Telegraph, Charles Spencer

**존 티파니의 훌륭한 프로덕션… 천재적인 예술성을 가진 작품이며 깊은 감정이 느껴진다.**

* ‘THRILLINGLY HAUNTING……WONDERFULLY EVOCATIVE……SENSATIONALLY GOOD’

– Evening Standard, Fiona Mount ford

**잊을 수 없는 황홀함... 숨어있던 감성을 자극... 환상적인 아름다움**

* ‘A MAGNIFICENT FIVE-STAR HIT!’ – BBC, Neal Sean

**아름다운 특급 인기 작품!**

1. **히스토리**

* **Dundee Rep Theatre, 스코틀랜드** 2013.06.05 – 2013.06.29
* **Royal Court Theatre, 영국 런던** 2013.11.29 – 2013.12.21
* **Apollo Theatre, 영국 런던** 2014.03.26 – 2014.08.30
* **St. Ann's Warehouse, 미국 뉴욕** 2015.01.20 – 2015.03.08